



본회는 5월 22일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에이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 월드컵 기간 라디오 캠페인 실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6월 한 달 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모임 회장은 이 캠페인에서 “에이즈는 예방이 최선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청취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캠페인은 KBS FM에서 저녁 7시 56분, SBS 파워FM에서 아침 7시 56분, 저녁 6시 56분, 7시 56분 하루 4회, 총 120회 전파를 탔다.

### 월드컵 대비 교육, 홍보 위한 워크숍



본회는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월드컵 대비 효과적인 에이즈교육과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는 김모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과 관리대책(국립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 에이즈의 동향(김준명 연세대 교수), 월드컵 대비 민간단체 및 지역 보건소의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방안(이창우 사무국장) 등의 강의와 발표, 분임토의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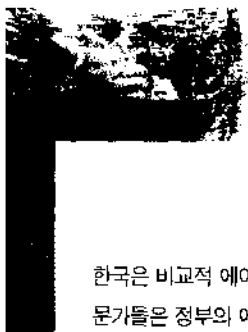
특히 분임토의에서는 구체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전략의 문제점, 효과적인 실행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에이즈 예방교육 비디오 2편 제작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월드컵 개최와 때를 같이 하여 에이즈 예방 홍보비디오를 제작했다. 특수업태부 등 성관련 업종 종사자, 동성애자, 유흥업소 관련 업종 종사자 등 감염 노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교육 비디오 1편과 일반인용 비디오 1편을 제작하여 월드컵 기간은 물론 다가올 아시안 게임과 일반 집단 교육, 고위험군 교육 등에 활용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당신의 선택’에서는 특히 직업적으로 에이즈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자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국제적인 행사로 외국인의 방문도 점점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에이즈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님을 알리는 일반인용 비디오 ‘에이즈,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는 전반적인 전파경로, 예방법 등과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에이즈 단속 손 놓으려나

한국은 비교적 에이즈 확산 저지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이즈 진료비 지원정책을 일등공신으로 꼽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에이즈 확산을 막는 '독' 구실을 했던 정부 지원이 최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면역기능과 바이러스 검사비를 정부 보조에서 본인 부담으로 돌렸다. 검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에이즈 약값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감염인들은 대개 두세달에 한 번씩 면역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맞춰 약을 처방받는다. 검사비는 30만원 남짓이지만,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거나,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부담이라는 게 감염인들의 이야기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처방도 받을 수 없어 정부의 에이즈 약값 지원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에이즈 방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뒷늦게 지원 중단 사실을 안 감염인 박아무개(30)씨는 "검사비 지원

중단은 진료 포기나 미참가지"라며 "거리시위라도 하고 싶지만 신분노출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이즈 관련 예산은 연간 15억원이다. 올해로 3년째 제자리다. 보건복지부가 검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한국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686명으로 인구대비 감염자 수는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견줘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도 점점 에이즈 안전지대 비껴나고 밀려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창우 국장은 "감염인들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유흥가로 흘러들 경우 사회적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잔돈 아끼려다 큰돈 드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5월 6일)

## 에이즈, 격리 차원으로만 생각 말자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수년 간 전남 여수시에서 수백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녀가 상대한 상당수의 남성들이 콘돔을 끼지 않고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기회에 에이즈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실태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전세계의 에이즈 감염자는 6천2백만명으로 집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3월까지 1천6백86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97%는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주목되는 것은 과거에는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성 간의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에이즈가 무서운 속도로 번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감염자 수는 전년에 비해 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여수의 에이즈 감염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콘돔을 착용하라고 권했는데도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에이즈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이

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감염됐을 때 남에게 쉽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다.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그를 비밀리에 접촉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타인과 성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홍보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완전히 낫게 해주는 에이즈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에이즈 관리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자. 우리가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에이즈가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지면 그날부터 가족, 친구는 물론 사회의 질서와 냉대가 시작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든 점이다. 이처럼 가족, 친구, 사회가 그들을 감싸안지 못하는 것도 에이즈 확산의 한 요인이다. 에이즈는 약수나 포옹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는다. 설령 감염됐다 해도 5~10년 간은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들이 일상 생활을 꾸밈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면 <49쪽에 계속>

## 리바이스 본사 회장, 감염인 사진전 관람



리바이스 본사의 밥 해스(Bob Hass) 회장이 경북궁 지하 철역 개최되고 있는 감염인 사진전을 5월 15일 관람하였다. John Anderson 아태지역 사장, 박창근 한국지사장 등 리바이스 관계자들과 본회의 김모임 회장, 김준병 운영위원장, 고명은 인권복지위원장, 이용수 홍보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전시된 사진 작품들을 감상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한국의 상황과 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 리바이스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이 에이즈 예방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본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 에이즈 숨진 채 수백명과 성관계

경남 김해경찰서는 5일 에이즈 진단을 받은 뒤 1년 6개월 동안 수백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모(28,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1999년 말 에이즈 환자로 판명나 1년 동안 김해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없이 종적을 감춘 뒤 유흥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시 구포, 전남 여수, 경기도 화성 등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하루 평균 2~10명씩 지금까지 수백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콘돔 착용을 거부했다고 진술해 11씨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1씨는 경기도 모 보건소에서 보건

증을 발급받으려다 붙잡혔다. (중앙일보 6월 6일)

## 유엔 에이즈예방 드라마 제작 - 케냐 작가, 배우 참여

유엔환경계획(UNEP)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드라마를 제작, 방영한다. BBC는 1일 "수억만명의 아프리카 시청자들을 겨냥해 '마음과 영혼(I Heart and Soul)'이라는 타이틀의 드라마가 오는 7월부터 방영된다"며 "에이즈 외에 가난 극복, 환경보호, 인권, 성차별 등의 5가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드라마는 1992년 남아공에서 상영돼 큰 인기를 모았던 '영혼의 도시(Soul City)'를 모델로 제작되며 매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BBC는 '영혼의 도시'가 방영될 당시 시청자 95% 이상이 드라마를 보고 평가 배웠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에이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6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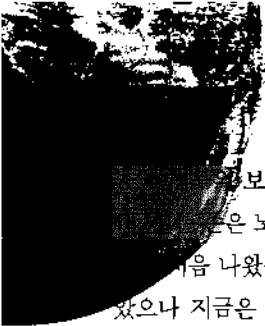
## 멜튼 존 "에이즈 지원액 줄이다나..." 英정부에 분노

팝스타 멜튼 존은 영국 정부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지출액을 감축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에이즈 퇴치에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촉구했다.

빈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가중인 멜튼 존은 스카이 TV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비록 노동당에 투표했지만 노

<48쪽에서 계속> 그들도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에이즈 감염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에이즈에 감염돼 숨진 미국의 배우인 록 허드슨과 농구선수인 존슨 등은 에이즈 퇴치 등 캠페인에 이바지했다. 우리도 에이즈 감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자. 격리나 관리 차원으로만 에이즈를 생각해서 안된다. 에이즈 감염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에이즈 감염자와 함께 (World Living with HIV/AIDS)라는 표어를 내놓았다. 그리고 올바르게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6월 18일)

**박병하** 국립보건원 전염병 관리부장



보건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와 블레어 총리에게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몫을 나눴을 때는 영국 정부의 지원실적이 매우 좋았으나 지금은 매년 책정액이 줄고 있다”며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절보다도 실적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세계일보 5월 23일)

### 월드컵 외국인 유력녀 비상

월드컵 특수를 노린 러시아와 동남아 출신 유력녀들이 국내 유흥가에 대거 진출, 외국인 매매춘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한국관광공사와 경찰은 적어도 5000~6000명의 외국인 유력녀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매춘 실태** = 이달들어 국내 월드컵 개최 도시의 유흥가에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의 ‘인터걸’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출신 유력녀가 부쩍 늘었다.

지난 15일 밤 영국인 바이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호텔 앞에서 택시를 탄 무역업자 강모(36)씨는 ‘백인 접대부가 나오는 곳이 있다.’며 매춘을 권하는 택시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강씨는 “모 국가의 월드컵 대표팀이 투숙하는 고급 호텔 주변인데도 공공연하게 호객꾼이 판을치고 있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회사원 김모(31)씨는 “최근 강남의 유흥가에 ‘백인 여성 마사지’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는 호객꾼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5월 20일)

### ESCAP 보고서 ... 아태지역 에이즈 급속 확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급속히 번져 거의 일반적인 전염병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6일 경고했다. ESCAP은 성명에서 새로운 에이즈 감염이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감염자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인도와 중국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실태 보고서는 16~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ESCAP 각료 회의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에이즈 감염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감염자가 350만 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태국은 성인 인구의 2%가 넘는 74만 명이, 캄보디아는 성인의 4%가 감염자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1년 상반기 감염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67.4%나 증가했으며 예방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2010년에는 감염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보 5월 8일)

### 민간 '에이즈 기금' 만든다

최근 에이즈 감염자의 윤락행위로 에이즈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에이즈 기금을 조성해 이를 통해 감염자의 생계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18일 “에이즈 감염자들이 윤락에 종사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데다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에이즈 기금조성을 통해 감염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 중 6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감염자는 여성 3명을 포함한 28명으로 조사됐다.

보건원측은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여성감염자 3명의 소재를 시도를 통해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원은 또 에이즈 환자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바이러스검사(RNA검사)를 7월부터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바이러스 검사비용을 이른 시일내에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일보 6월 18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5-6월)**

강연황	10,000	김효열	50,000	윤성현	5,000
권순주	10,000	박상운	50,000	이윤진	10,000
김금재	10,000	박상원	50,000	조인재	28,000
김남교	10,000	박은숙	94,500	한석희	100,000
김매자	10,000	박인혜	20,000	함유식	30,000
김영웅	10,000	심치선	100,000	(주)에스디	100,000
김정숙	10,000	유금숙	20,000	성가복지병원	
김철부	30,000	유영미	20,000		100,000